

축산관계자 대상 개방형 전신소독기 시범 전환

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

◎ 내용

-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(지역본부장 김기훈)는 현재 축산관계자* 입국 시 실시하는 대인소독형태를 기존 밀폐형에서 개방형으로 시범 전환한다.

* 축산관계자 소독 : 축산관계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, 구제역(FMD),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(HPAI)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기로 출국하거나, 가축전염병 발생국기를 체류·경유하여 입국 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야 한다.

** 축산관계자 범위 : 가축의 소유자, 가축소유자 동거가족, 축산농가 고용자, 수의사, 가축인공수정사, 동물약품·사료 판매자, 가축방역사, 가축분뇨 및 원유수집·운반자, 가축시장 종사자, 도축장 종사자 등

- 이번 시범 전환은 기존 밀폐형 전신소독기의 좁은 공간에서 소독액 분사와 축산관계자가 직접 센서를 인식시켜 작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, 검역본부 자체 국경검역 개선 T/F과제 중 소독방법에 대한 개선안이다.

◎ 개선 효과

- 개방형 전신소독기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, 신발에 소독약이 충분히 침지되도록 신발소독조를 별도로 특수 제작함으로써 소독효과를 증대
- 손과 하의에는 바이러스 살균효과 및 안정성이 확보된 인체용 살균제를 적용

축산관계자에 대상 전신소독기 밀폐형/개방형 비교



[기존] 밀폐형 전신소독기



[개선 후] 개방형 전신소독기

◎ 시행 계획

- 우선,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(C구역)에서 약 3개월간 시범운영하고 「민·관 합동 평가회」를 거쳐 전국 공항만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.